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10
2019.5.19

2019년 주님의교회 포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
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
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
이니라 _ 창세기 18:19

오늘의 주요기사

- 2면 성서칼럼
- 3면 사역 보고
- 4-5면 무지개잔치 화보
- 6-7면 교회학교 교사 특집
- 8-9면 창립 30주년 특집
- 11면 목회칼럼
- 12면 아기나들이, 알립니다.

교회일정

5/19(주일) 교사주일 / 결혼예비학교 개강
5/26(주일) 청년주일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힘껏!

2019년 무지개잔치가 지난 5월 4일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높이 도약한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 화보 4~5면

함즐함울

성서칼럼 돌부리

두 여자의 12년(마가복음 5:21~43), 두 번째

한글 사용을 지향하는 함즐함술 성서칼럼에서 굳이 “바디 폴리틱(body politic)”이라는 외국어를 음차해 사용하는 까닭은, 이 표현에는 하나의 정치사회 단위를 바라보는 고대인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몸을 뜻하는 “바디(body)”와 정치적이라는 의미의 “폴리틱(politic)” (“도시, 사회”)를 뜻하는 그리스어 “폴리스(polis)”에서 기원했다. 이 결합한 이 영어 표현 자체는 기껏해야 15세기 중세 영어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개념과 수사학의 뿌리는 예수 시대를 훌쩍 넘어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인들에게 한 인간의 몸은 단순히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평등한” 부위들이 결합한 유기체가 아니다. 몸의 각 부위는 서로 간에 뚜렷한 우열을 지닌다. (예를 들어, 하나의 몸 안에서 머리, 눈 등은 배나 손발 따위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하나의 몸이 드러내는 성정체성, 체질, 기질 따위도 별개의 독립적인 성질이 아니라, 우열관계에 있는 상반된 성질들이 섞여서 어떤 비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남성, 여성”이라는 독립된 두 가지 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한” 남성적 기질들과 “열등한” 여성적 기질들이 한 몸 안에서 어떤 비율로 배합되는가에 따라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꼭대기의 극단적 남성성으로부터 바닥의 극단적 여성성에 이르는 수직축을 따라 다양한 등급의 몸이 분포한다. 일례로 아직 성인에 이르지 못한 소년의 경우 단순히 어린-남성이 아니라,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비해 열등한 여성성이 강한 유사-여성적 존재로 간주한다. 이처럼,

하나의 몸은 그 자체로 우열 관계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몸의 생리학적 구조는 가치판단이 듬뿍 담긴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언어들로 묘사된다. 몸의 각 부분은 모두 명예와 수치, 강함과 약함, 남성성과 여성성, 풍성함과 빈약함, 정결함과 부정함 같은 이원적 대극 사이 어딘가에 자기 고유의 자리를 가지며, 하나의 몸은 이러한 수직적 계층 어딘가에 속한 여러 부위가 명확한 위계질서 속에 종합된 공동체이다. 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몸”의 은유를 통해 한 사회와 그 사회 안에서의 역동을 이해하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는 명예와 수치, 강함과 약함, 남성과 여성, 부와 가난, 정결과 부정 같은 정치적, 윤리적, 종교적 대립 가치 사이에 형성된 가파른 수직 구조물을 의미한다. 한 “몸”을 이룬 모든 사회 구성원은 이 “몸”의 한 부위가 되어 우열이 명확한 피라미드 한편에 자기 고유의 자리를 가진다. 이것이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몸”으로서의 사회이고, 마가가 묘사하는 이 유대인 마을의 기저음이다. 회당 체제를 통해 규율된 하나의 “바디 폴리틱”, 즉, “정치적 몸”을 이룬 한 유대인 마을. 회당장 아이로는 바로 이 〈마을-몸〉의 정점에 선 주인이자 운영자였고, 그렇게 회당장을 배출할 수 있는 유력한 집안의 남성, 즉, 가부장이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지역 회당 공동체(body politic)의 또 한 사람이 등장한다. 마가복음은 우선 아이로와 이 사람을 대조시킨다. 아이로는 남성-가부장이지만, 이 사람은 여성이다. 아이로는 강하고 부자이지만, 이 사람은 “가진 것도 다 허비”(5:26)하여 심히 가난하다. 아이로는

이름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름이 없다. 아이로는 건강하지만, 이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다. 이 모든 걸 당시 지중해 연안 공통 어법으로 바꿔 말하면, 아이로는 명예롭지만, 이 사람은 수치스럽다. 고대 종교언어로 압축해 말하면, 아이로는 정결하지만, 이 사람은 부정하다. 고대사회의 가치 위계에서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우열이 확실할 순 없다. 이러한 확고한 명암 속에서 마가는 “12년”으로 묶인 두 여자를 보여준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 먼저 등장한 한 여자는 아버지에게 의해 “내 어린 딸”(5:23)이라고 불리며, 마을의 다른 이들에 의해 “당신의 딸”(5:35)이라고 불린다. 명실공히 이 마을의 “딸”이다. 이러한 호칭은 죽어가던 소녀가 단순히 연령이나 성별만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여자-아이”가 아니라, 〈아이로 가문의〉 여자이자 〈회당장의〉 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회당장의 “딸”에게 12년은 축복의 시간이었다. 명예롭고 정결한 가문에서 귀한 생명을 받아 태어났고, 이제 어느덧 사춘기에 이르러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간다. 그런데 그 축복의 12년 끝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다.

그리고 또 다른 12년을 보낸 한 여자가 혼자, 모두의 뒤에서 몰래 등장한다. 이 여자에게 12년은 생명의 근원인 피가 지속해서 상실되는 시간이었다. 생명을 잉태할 희망이 사라졌고, 자기 생명도 함께 사라져 갔다. 12년은 지독한 수치와 부정함의 세월이다. 12년은 이 여자의 이름을 지웠다. 아니 애초에 이 여자는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지 못한다. 그 저주의

12년 끝에 예수께서 이 여자를 찾아낸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5:34) 그러나 마가가 마지막 방백(5:42) “나이가 열두 살이라”까지 숨겨뒀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여자 사이에도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아니, 두 여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다만 이 마을에는 “딸”이 잘 커갔고, 그러나 갑자기 이유 없이 12년 만에 “딸”이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 무리는 예수를 떠밀어 “딸”에게로, 회당장의 집으로 보낸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마을에 두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 이 두 여자의 인생이 하나의 연속이라는 것을 아신다. 한 여자에게는 축복과 명예의 12년이, 한 여자에게는 저주와 수치의 12년이 흘렀지만, 그 12년은 각자의 분수에 따른 자기 운명의 시간이라 아니라, 이 유대인 마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몸”이 겪는 하나의 시간이다. 그 하나 “몸”에서 이름 없는 혈루증 여자가 열두 해 동안 흘렸던 피가 결국 열두 살 난 아이로 딸의 생명을 고갈시켰다. 그러므로, 이 어린 응급환자를 향한 예수의 더딘 발걸음과 산만한 둘러봄, 그리고 연고 없는 한 부정한 여자를 향해 서슴없이 “딸아”라고 부르며 무리를 웅성거리게 한 예수의 돌발 행동이야말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살게 하소서”(5:23)라며 엎드린 아이로의 간청을 이루는 예수의 치료법이었다. 이상과 현실, 축복과 저주가 교차하는 극단의 시대 속에서 찢긴 이스라엘의 “몸”을 향한 예수의 처방이었다. “딸아, 평안하여라, 건강하여라”(끝)

손경민 전도사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기도 용어 편 4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중보기도(X) 중보적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O)

기독교에서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단 한 분의 중보자이시다(딤후 2:5). 그러므로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성육신 이전에도 선재(在先)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중보자이셨다(요 1:3, 10; 골 1:16; 히 1:2).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행위가 가장 명백하고 독점적으로 드러난 곳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는 이미 완성된 구속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속의 열매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끊임 없이 의존하며 살아간다. 예컨대, 믿는 자들이 드리는 감사와 기도도 그리스도를 통

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요 14:14; 롬 1:8; 골 3:17; 히 13:15).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눅 22:69; 골 3:1; 히 12:2). 하늘에서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일면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다(롬 8:34; 히 7:25).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종말에 있게 될 부활과 심판의 때에도 계속될 것이다. 즉 부활과 심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요 5:28~29, 고전 15:22, 52~54; 살전 5:16; 마 25:31~46; 요 5:27; 행 17:31). 그러므로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적 기도”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중보적 기도는 중보자의 기도(중보기도)와는 다른 “나” 아닌 “남”을 위한 기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함즐함술 정리

해외선교소식 | 키르기스스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삶을 나누는 선교

저희는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4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현재 본국에서 선교 사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치기공으로 복음이 필요한 선교 대상자들을 섬기는 직업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치과 의료 선교회는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기공사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임무를 수행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저 역시 치기공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현지 기공사들을 교육하고 도와 주며 섬기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은사이며 소명인 직업을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합니다. 육체적인 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부분도 삶을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합니다.

통전적 전문인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봄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입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단지 입으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 그들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

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통전적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창의적 접근 지역의 증가입니다. 이슬람권은 직접적인 전도가 어려운 데다가 대부분의 선교지는 종교 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비자나 NGO비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지역을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통합적 사회구조를 가진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전인적 선교가 필요하고 선교지도 사람이 사는 곳 이기에 복음과 빵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더불어 사회적, 개인적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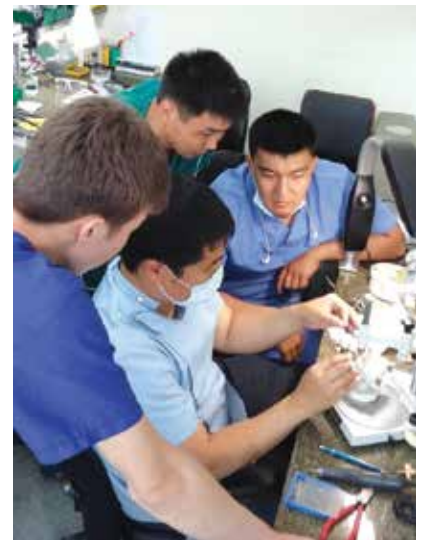
셋째로 전문인으로 선교지에 들어 가면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이 발생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치과 기공소는 현지인 형제들이 기술을 배우고 싶어 직접 찾아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다가가지 않아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공소로 와서 기술을 배우며 관계가 깊어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점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흩이얇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4가지의 마음의 밭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저는 그동안 좋은 땅이 아닌 돌

밭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 형제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밭이 좋은 땅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돌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고 밭을 수고로 개간하여야 좋은 밭이 되어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헌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린도전서 3장 6~7절)의 말씀처럼,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영혼 구원이 쉽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에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묵묵히 성실하게 지키고 그들과 함께 같은 눈높이와 같은 위치에서 그들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어려울 때 함께 울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성품의 완성이다. 믿음 생활은 날개를 달고 솟아오르는 비약이 아니라 기진하지 않고 걸어가는 보행의 생애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현지인들의 마음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 보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역사 속에서 완성해 가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길 간구합니다.

한진혁 선교사

사역보고 | 임마누엘 찬양대

환우를 위한 희망과 위로, 한양대병원 찬양 봉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질병의 고통도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건강하였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질병으로 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좋은 치유자가 되라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혼자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나올 수 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양대 찬양 봉사는 약 10년 전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하시던 제1대 찬양대장(김양자 장로님)의 주선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원목 진문일 목사) 본관 3층 강당에서 입원중인 환우들을 모시고 이명국 지휘자와 같이 매월 첫째 주에 약 20여 명의 대원이 아침 8시에 모여 1시간 가량 연습 후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와 찬양 봉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목적은 찬양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찬양 봉사에 나와 주시지만, 유독 열심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으로 투병중인 분들도 계시고 또 완치되신 분들도 계



십니다. 찬양대원들 중에는 10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대원분들도 계십니다. 찬양 봉사의 백미는 예배가 끝나고 엔딩 찬양을 하는 동안 머리숙여 기도하는 환우들을 보며 이 찬양이 환우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희망과 위로를 준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또

수를 보내 주셨습니다. 어떤 환우는 주일 아침 병원에 올리는 임마누엘 중창단의 찬양소리는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병원 같았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한양대학교 병원의 찬양 봉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김성수 집사 / 임마누엘 (4부) 찬양대장

어린이주일 특집 | 2019 무지개잔치 화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지난 5월 4일 정신학원 교정에서 2019년 무지개잔치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는 도발적인 주제로 열린 이번 무지개잔치는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주님의교회 교인과 자녀, 이웃들이 참여,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화보로 이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사역 간증 | 어와나 트렉

포개어진 손

“가늘고 길게 참가해주세요. 몇 달 쉬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쯤 외부 신문에 기재된 기사 중에서 이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봉사자들이 잠깐 왔다가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길 소망한다는 봉사단체장의 부탁의 글이었습니 다. 그런데 이 말이 왠지 저에게 하는 말인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와나 트렉의 중학생 아이들은 3년 동안 약 50시간의 봉사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 다. 저는 이 시간이 어쩌면 아이들에게 “가늘고 긴”시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는 장애인 복지 재활원인 ‘사랑 쉼터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들의 생활과 재활 그리고 자립 등을 돕는 시설로서 20명 정도의 장애인분들과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



는 목사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전화를 걸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오셔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어울려 주시면 됩니다.”라며 흔쾌히 우리를 맞이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월 27일, 5월 4일 양일간 그곳에 가서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봉사를 가서 놀고 왔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학생으로 이루어진 우리 팀이 그곳에 가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청소도, 식당 봉사도 아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걷기 힘든 이,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어주지 않

면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손을 꼬옥 잡고 있지 않으면 어디론가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다만 그분들의 손을 꼬옥 잡고 산책을 하며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였기 때문입니다.



니 서서히 마음을 여시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새 그분들과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숨바꼭질과 공놀이를 하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사랑 쉼터의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는 어쩌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며 ‘시혜’의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어 맞잡았



을 때, 아이들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가늘고 길게”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는 어떤 거창한 것이라기보다, 손 위에 손을 포개어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걸어보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입니다. 앞으로도 ‘사랑 쉼터의 집’의 가족들과 우리 어와나 트렉 아이들이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호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백양선 전도사



처음에 그분들은 우리가 손을 잡는 것도, 옆에서 잘 걸을 수 있도록 부축해드리는 것도, 말을 거는 것도 어색하고 어려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가 그분들과 있으면서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가져왔던 기존의 이미지나 편견을 아주 조금이라도 허물고 다가가

학생소감

김지후 : 장애인을 도와주고 같이 놀아서 재밌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했다.

황현종 : 생각 이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좋았으며 봉사시간을 재밌게 채울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그분들과 많이 놀고 싶었는데 못 놀아서 아쉬웠다.

위성연 : 처음으로 장애인과 함께 만나 신기했다.

박화빈 : 처음이라 그런가 낯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재밌었다.

장운태 : 중2와서 처음 하는 봉사였는데 조금 생소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뿌듯했다.

우정수 : 서로 다가가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로 인해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다음에 또 만나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강준석 :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가갈 수 있어 좋았다. 매일 매일의 삶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희규 : 내가 잘 보고 듣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고 구별되지 않은 자리에서 친구처럼 놀 수 있어서 즐거웠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정성주 : 장애인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박지원 : 혼자서 할 수 있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최소망 : 봉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분들과 함께 놀고 온 것 같다.

방주원 : 힘든 사람을 도우고 함께 놀 수 있어 재밌고 뿌듯했다.

박 필 : 처음이라 조금은 걱정했지만 걱정과 달리 재밌었다.

권순유 : 아무리 몸이 아프지만 순수하셔서 좋았고 재밌었던 봉사였던 것 같다.

안지영 : 이번 봉사활동은 그분들 덕분에 오히려 우리가 재밌게 논 것 같다. 또 놀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다음에도 가고 싶다.

김재현 : 보람있는 봉사활동이었다. 그리고 사랑의 따뜻함이 느껴져서 좋았고 정말 의미있는 봉사였다.

교사 간증 | 어와나 트렉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녕하요. 트렉 교사 김민경입니다. 5월의 푸르른 날에 트렉 아이들,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찾은 '사랑 쉼터의 집'에서의 봉사활동 시간이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었기에, 오랜 기간 특별한 활동 없이 아이와 함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불티 단원모집을 통해 트렉 교사 지원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으로 참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렉 교사로 5월 봉사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쉼터의 집에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지내시는 몸이 불편하신 많은 분들을 뵈게 되었습니다. 운동량이 매우 부족한 쉼터 식구들



을 위해 우리 아이들은 쉼터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도 하고, 뒷산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진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얼까 생각

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그분들보다 우리가 건강하고 평탄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물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감사함보다는 무언가 더 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일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마무리 시간이 되었고, 목사님께서 트렉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공평'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것들이 있다면, 부족한 이들에게 흘러보내고 나누며 살게 된다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공평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작은 것이라도 감사히 나누고 실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민경 교사 / 어와나 트렉

교사 간증 | 유아숲

아이들 보살필 손길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현재 찬양반주 교사로 하늘씨앗 2부를 섬기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유치부 반주를 시작으로 하늘씨앗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시간을 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이시

간까지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엄마와 함께 울동과 찬양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며 신묘막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2018년부터 함께 예배드리

는 만 3세의 둘째 조카가 "고모, 몰랐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셔."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믿는 조카를 통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

니라. (막 10:14)" 말씀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영아부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고 예뻐합니다.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섬겨주실 손길이 많이 부족합니다. 함께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정지영 교사 / 하늘씨앗

교사 간증 | 청년부

청년부를 섬기며

올해로 청년부를 섬긴 지 3년째가 된다. 청년부는 따로 교사가 없다. 장로님을 포함하여 부장단으로 8분이 섬기고 있지만, 부장단은 행정적인 지원이 대부분이다. 모든 행사는 교역자들과 함께 청년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며, 각 청년들의 심방은 교역자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들이 청년들과 교제하는 시간은 극히 드물다. 이에 우리 부장들도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에게 조언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청년부내의 봉사팀을 부장들이 한 팀씩 맡아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이 중에 내가 맡은 팀은 방송팀으로 현재 13명의 청년들이 팀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방송팀은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와서 준비하고, 예배 중에 방송사가 나

지 않도록 긴장하며, 예배가 끝나면 예배 내용을 백업까지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많은 팀이다. 이들은 팀장을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수행하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게을리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며, 봉사하고 있어 이들을 지켜보는 나의 마음이 즐겁다.

지난 3년 동안 방송팀의 멘토로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들이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그들을 대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기에 티타임나 식사를 함께 한다. 가능한 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또한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분위기 만들기에 노력한다.

청년들과 만나 나의 생각을 전할 때에는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책도 보며 전하고 싶은 말을 준비한다. 가장 많이 참고한 서적은 이재철 목사의 청년 관련 책이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바라며 <새신자반>, <성숙자반>도 여러 번 읽고 준비한다. 하지만 이런 티타임이나 식사 기회는 자주 가질 수 없기에 매주 기도하는 시간을 이용하기도 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배 후 수고한 청년들을 위해 방송실로 찾아가 기도하는데, 나는 이 시간을 이용하여 기도의 내용 속에 가능한 한 이들에게 위로와 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축복하며, 청년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자세 등을 포함시켜 하나님께 간구한다. 방송실에서 일을 마무리하다가 멈춰서서 기도할 때는 밀레의

<만중> 그림이 떠오르기도 하여 행복하다.

최근에는 카톡방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처음에는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도제목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간에 신뢰가 쌓이면 조금씩 서로의 속마음까지 보여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방송팀이 열린 마음이 되고 서로 그리워하며 나아가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될 길 소망한다.

아울러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위한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청년 소그룹의 멘토로 참여해 주실 것을 권해본다.

박기운 안수집사

창립 30주년 기념 특집기획 : 함줄함울 지상토론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⑦

환경,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은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

“한국사회와 주님의교회 30년” 그 마지막 글은 익명의 교인이 보낸 환경에 대한 글입니다. 6월 마지막 주 31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 특집을 마감합니다. 다음 호에는 그동안의 특집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좌담회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주셨던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과 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제 순서

1. 한국사회,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교회가 사회와 함께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창립 후 30년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2. 소통_교회의 언어는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에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용어와 일상어와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사회와 소통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3. 정치_민주주의와 기독교는 동행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해 봅니다.
4. 경제_이 시대의 경제구조를 교회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사회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경제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5. 교육_그리스도인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급변하는 이 사회의 다양한 속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6. 가치_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출몰하고 충돌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다양한 가치들을 바라보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7. 환경_그리스도인에게 자연은 무엇인가
자연 보호와 개발의 문제, 원전과 에너지 문제, 생명권과 동물권 등,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자연에 대해 성찰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전에는 봄날 하늘을 흐리게 하는 정도라고 보았던 황사 대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 재앙이 계절과 관계 없이 한반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지금, 환경문제는 이제 단순한 개념과 당위의 단계를 벗어난 현안이 되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가속화되어온 개발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를 뜻하는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파괴되어왔다. 한편 인류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인류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석유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지구온난화에 일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을뿐더러, 그나마도 사용 가능한 매장량의 한계가 일찌감치 예측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은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등에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청구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대체할 친환경적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한편 동물원 수족관에 갇혀 인간을 위한 구경거리가 되었던 돌고래를 비롯한 동물들의 생존권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었고, 전에는 ‘애완견’으로 불려 사람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았던 동물들도 인간과 함께 사는 ‘반려’의 대상으로 격상되었다. 이런 환경적 현안들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계에서는 환경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에 대한 신학계의 관심

우리와 미래의 후손을 전 지구적으로

로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치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다. 신학적이란 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전 존재들과 그것의 실존적 문제들에 대하여 성서를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환경에 대한 태도는 오래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창세기 1장 28절)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로 해석되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기독교 사회는 아무런 신학적 저항 없이 개발을 이유로 환경 파괴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개발에 기인한 환경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학적 윤리가 요청되기 시작했다.

기독교계에서 환경에 대한 반성과 신학적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의 서구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 이르게 된 1970년대부터이다.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서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신학과 교회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이 위기상황을 성경적인 창조신앙에 근거한 생태학적 신학으로 극복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선언은 생태학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최초로 공식 표명한 것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생태학적 성경해석이 시도되었다.

1983년의 제6차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서는 자연보전의 문제가 신학적 토론과 실천의 과제임을 밝혔고, 1991년의 제7차 총회에서는 주제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로 하고 부제를 창조보전으로 삼음으로써 생태와 환경 문제가 신학의 주된 주제임을 보여주었다. 이런 논의과정에서 신학자들은 ‘환경’보다 ‘생태’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는 ‘환경’이라는 말이 인간중심적인 어휘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생태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생태에 대한 그간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인간중심주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중심주의를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말씀을 그 근거로 본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을 해석하는 관점이다. 이 견해는 기독교에서도 일정 부분 존중되지만, 대개는 원천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계몽주의 사상과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같은 세속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사고가 자본주의와 산업화로 이어지면서 생태계 위기를 촉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계에서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생태중심주의이다. 생태중심주의는 전체 생태계가 기독교 윤리적으로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생태중심주의는 지구의 생태계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지탱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배격한다. 이러한 견해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듯이 다른 피조물도 지구 공동체의 일원이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상호의존적인 체계 속에 살아가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모든 유기체는 그 자체의 방식으로 그 자체의 선을 추구하는 독특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인 생명의 중심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많은 생태중심주의자들이 인간중심

주의를 배격하지만, 신학적으로 이 견해는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으로서, 자연을 파괴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의 고유성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극복하는 세 번째 관점이 제시되는데, ‘하나님 중심주의’이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며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견해로, 하나님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이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며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겨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를 극복하면서, 인간에게 지구를 지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에 관한 기독교의 통찰력을 보존하는 견해로 인정받고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환경 윤리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중심주의의 중요한 면면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뿐만이 아닌,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짐승”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인간과 모든 생물과의 공동 운명체성을 보여준다. 달리 말해 이 언약은 인간에 의한 환경보전의 책임이 우리의 후손들까지 미쳐야 함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보전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이 보전되는 세계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가 된다.

〈창세기〉 1장 26절의 “다스리다(radah)”라는 동사의 어원적 유래도 ‘돌본다’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본다면, 인간의 청지기됨, 즉 인간이 자연을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복하라”는 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구절과의 연계성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정복하라”는 결코 폭압적인 자연에 대한 파괴를 의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창조주되시는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있는 인간으로서 좋은 세상을 지어주시는 창조주의 섭리와 뜻을 거스리는 행위

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여야 할 책임은 강제나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기독교윤리연구소에서 2018년 12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개최한 “인간과 동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포럼도 이러한 신학적 관점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에너지에 대한 신학적 추세

전지구적 관점에서 환경과 에너지의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세계 각국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도 사실이다.

원자력에 대한 초기 기독교계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원자력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 부정하는 관점,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와 교회의 주된 입장이었던 원자력을 과학기술의 문제라고 보면서 원자력과 관련하여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 관점이 혼재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폭탄 등 핵무기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에서 단호한 반대를 보였으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바탕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그 주요 이유는 경제성, 안정성, 청정성이었다.

그러나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해당 지역 일대를 폐쇄해야 하는 심각한 재앙이 발생한 이후, 이 근본 이유에 대한 회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반원전’, ‘탈원전’에 대한 신학적 타당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즉 지진과 같은 자연적 재해와 인간의 실수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과, 일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피해가 재앙 수준으로 막대하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이 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1년의 일본 후쿠시마 사고는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긴급 대

피도 어려웠으며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경제성, 안정성, 청정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며 심도 깊은 탐구가 시작되었다.

이런 탐구 결과 ‘원자력 에너지가 그 어떤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경제성이 있다’는 명제는 기독교 생태윤리 관점에서 가장 먼저 비판받아야 할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가 1979년 MIT에서 개최한 세계대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가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적 이용을 반대했으며,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성을 보다 강조했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의 수준, 원자로 종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제 정도, 인건비 및 공사비용 차이, 사용 내구연도 경과 후 폐기 비용, 사용한 연료 보관비용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의 주원료인 천연자원 우라늄의 매장량 역시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용 후 1만년 이상 격리 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저장소 선정이 늘 문제가 된다는 점도 간과된다. 즉,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원자력 에너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에너지는 생태적이어야 한다. 생태적이란 생명 친화적이다. 아무리 값싸고 좋은 에너지일지라도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반생태적인 것이다. 프란츠 알트는 이렇게 말한다. “원자폭탄이 예수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예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단 한 번의 대형 원전사고가 인간과 자연을 일거에 회복 불가능한 공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례가, 우주에 사람을 보낸 미국과 소련, 그리고 기술왕국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역시 기술로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정밀기술의 국가 스위스가 탈원전을 선언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거의 도쿄 근교까지 이르는 지역에서 방사능이 발견되고 있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금수품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현실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성, 안정성, 청정성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이제 경쟁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생태적 예수의 정신은 전 지구

적 창조세계에 대한 보존과 관계 유지에 기초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폭발 누출 사고는 다른 어떤 오염보다 치명적으로 더 심각하고 위험하기 때 문에, 원자력 에너지는 단연코 맑고 깨끗한 녹색에너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14년 7월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하여”를 선언하고, 8월 장상 세계교회협의회(WCC) 회장이 일본을 방문,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전 세계 110개국 5억 6천만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협의체임을 설명하고, 핵무기로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전달한 것도 이러한 판단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보는 환경 이해

하나님은 자연을 인간의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목적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인간을 자연의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목적으로 창조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는 환경과 생태에 대한 가치를 입법화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만이 가치와 목적과 의미와 권리와 윤리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 중심주의는 이 시점에서 생태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전지구적 생태계의 유지에 대한 기독교인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익명의 교인

참고문헌

- 강병오, 기독교 생태윤리 관점에서 본 ‘원자력 발전’ 문제, 한국조직신학논총 제31집, 2011.
- 구리바야시 테루오, 원자력과 기독교 신학, 기독교사상, 2014. 11.
- 송준인, 신학적 입장에서 본 환경문제, “지구적 교회, 지역 환경을 생각한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포럼), 2009. 5.
- 장윤재, 동물,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과 동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기독교윤리연구소 포럼, 2018
- 홍완식, 반려견 법률상식, 마인드맵, 2018

함줄함울 캠페인 | 본질을 생각하는 교회 ❶

공간을 아끼는 것은 고난이 맞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현대인은 넓은 공간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소파와 식탁 등 가구뿐 아니라 다양한 가전제품을 집안에 들여 놓으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식구별로 필요한 자동차 때문에 실외에도 주차공간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상점과 가게 그리고 백화점, 마트, 아울렛 등은 경쟁적으로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편리하게 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반문이 당연히 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공간을 넓게 사용하면서 비롯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과도한 에너지의 소비입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위하여, 여름에는 냉방을 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소비는 요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공간을 넓게

쓰면 더 많은 건물을 건설해야 하니 자연공간을 많이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은 기온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연공간이 사라지면 더 더워져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데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드물게 초대형교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마다 넓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31년 전 창립 당시 무소유, 즉 교회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창립정신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정신학원의 강당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건물의 무소유 정신을 통해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인의 수가 늘어나며 교회의 모든 부서가 공간의 부

족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다는 불만을 교회 여기저기서 들곤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쉽게 공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직면하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함께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학원과 강당건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절약하며 쓰는 기본 틀은 마련되었습니다. 이 틀 안에서 교회의 부서와 부서, 교인과 교인이 공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는 불편합니다. 내 마음껏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같은 공간을 함께 쓰는 다른 부서와 다른 성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자신을 희생함을 의미합니다. 공유정신은 기독교 정신과 상통합니

다.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러니 공간을 아끼고 함께 쓰는 것은 고난이 맞습니다. 사순절에 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함께 나누어 쓰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점이 기독교 정신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창립정신에 들어 있는 교회 공간의 무소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함줄함울

함줄함울 캠페인은 주님의교회 창립정신과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주님의교회 정체성이 “본질을 생각하는 교회”에 있다고 보고, 교회의 일상에서 본질을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입니다. 다음 주제는 “교회에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마시다.”입니다.

사역 보고 | 환경사역부

원전 참관을 마치고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 어느때 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환경사역 주관으로 4월 첫날에 교인 44명이 함께 원전시설이 있는 경주, 고리 지역을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첫 번째 일정으로 먼저 한수원 본사를 방문하여 국내외 원전동향, 안전성, 경제성, 필요성 등에 대한 현황설명과 원전 주요기기 및 격납건물 모형, 국내에 운영중인 원전 24기를 구석구석 감시, 관리하는 종합 통제실을 돌아보았다. 이후 보문단지에서 위치한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 시간에 보문단지의 아름다운 호수길 주변에 만발한 벚꽃 길을 거닐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송가가 절로 나오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으로 달려갔다. 70년대 원전 역사가 시작된 현장에서 2017년에 영구 정지된 1호기를 비롯

하여 현재 8기가 운영, 2기가 건설되고 있는 국내 최대 원전단지를 보니 그 규모에 놀라왔다.

국가 보안시설로 인해 엄격한 출입절차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하니 우선 공사장 규모가 어마어마함에 놀랐다. 현재 UAE에 건설중인 동일한 노형으로 설계, 제작, 건설, 운영 등 100% 우리가 개발한 기술로 건설되고 원전관련 최고 권위기관인 미국규제기관(NRC)가 인정한 세계 최고 최신기술로 UAE 수출계기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고, 사우디 등 원전 건설을 준비중인 국가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인접한 3호기는 UAE 원전 참조발전소로 3년전 준공하였고 운전 첫주기에서 무고장 운전을 달성하여 세계 원전 역사상 처음이라 한다. UAE에 수출한 원전4기가 작년 부터 차례로 상업 운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의 원전기술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미세먼지를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국내 에너지 환경이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1박 2일의 원전시설 견학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에서 자연과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40년 전만 해도 시골 우물물을 마셨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우물물을 마실 곳이 없다. 문명은 발달하여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에너지 사용량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자연과 환경은 그만큼 파괴되었다. 이런 속

도로 진행된다면 우리 손자, 손녀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지구환경이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과 환경을 적어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전기 절약, 물 절약, 비닐봉지 및 종이컵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가까운 거리 자전거 이용 등 환경사역은 전 교인이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김종식 안수집사 / 6교구

목회칼럼

나무같은 사람

며칠 전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도 중 우연찮게 작업 중인 도시녹화사 업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자주 오가 는 곳이기도 별 눈길을 끌지 못하던 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과 특수한 장 비들이 투입되어 북적북적 일을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습니 다. 꽃을 심어 아름답게 화단을 가꾸 던 사람들, 땀을 흘리며 솟아난 풀을 깎 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내 제 눈이 머물렀던 곳은 이제 곧 옮겨 심겨지 길 기다리는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어디에서 이만큼 커왔는지는 잘 모 르겠지만, 아무튼 청년쯤 되어 보이 는 나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 습니다. 그 나무는 새로운 환경에 인 사하려는 듯 까까머리 아이처럼 예쁘 고 동그랗게 이발을 하였고, 미리 준 비되어진 구덩이에 들어가기 위해 기 다리고 있습니다. 잠시지만 났을 놓 고 쳐다보는 내내 머릿속에 이런 저 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국토의 곳곳이 벌거숭이산 들이라 여기저기서 산림보호에 대한 캠페인과 표어들을 접할 수 있었고, 식목일이 되면 씨앗이나 모종을 구 입해 집 앞에 심고 물을 주며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는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그 날을 인식조차 못하고 지나갔던 것을 생각하며, 동시에 ‘그만큼 국가 적 녹화사업이 잘 진행되었나?’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곧 옮겨 심겨질 나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나무는 제가 나 고 자란 고향을 떠나오고 싶었을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뽑혀지고, 옮겨지기 위해 땅 아래로 넓게 드리운 뿌리가 뽑히고 송덩송덩 잘려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밀동만 덩그러 니 남아 있는 지금 이 상태가 부끄럽 게 느껴지지 않을까? 식물학자가 아 니라 잘은 모르지만 나무를 뽑아내 는 것보다 훼손된 그 나무를 다시 심

어 살게 하는 것은 몇 배 어려울 것 같 은데, 이곳에 심겨진 후에 다시금 흙 과 친해지고, 주변 나무들과 좋은 관 계를 맺어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남 을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는 제 이름 세 글자에 모두 ‘나무 목(木)’자 들어 있는 것을 아버지께 듣게 된 이 후부터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 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는 우리 에게 상쾌한 공기를 주고, 그늘을 주 고, 꽃과 열매를 주고, 땅을 감싸 안아 견고하게 지지해주고, 자기 몸을 나 누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 는 등 여러 가지로 고마운 존재라 생 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반가워 다가가 만져보기도 하고, 마 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 아래서 쉬고 놀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주는 많은 유익들에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쁜 삶에 치여 그 때 그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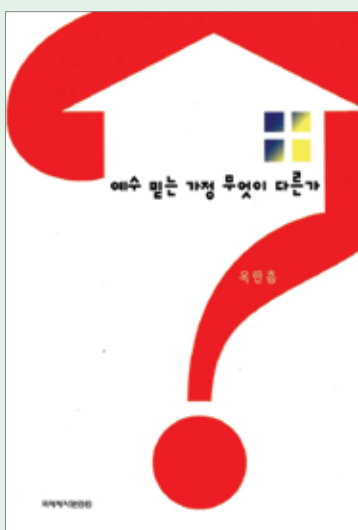
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생경한 환경에 새롭게 이식되어져 불안과 떨림이 가득할 그 나무를 바 라보며 제 안에 ‘나무 같은 사람’이 되 어야겠다는 어린 날의 다짐이 되살 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나무 에게 걸어가 인사해볼 작정입니다. 우리에게 와주어 고맙다고, 같이 잘 견뎌내며 살아보자고 이야기할 참입 니다.

박주영 목사

새해 특집 | 담임목사 추천 도서 ②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를 깊게 이해하는 좋은 책들

지난 407호에 이어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고 바른 부모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좋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들은 교회 1층 설만한물가에 비치, 쉽게 구입하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옥한흠 지음, 국제제자훈련원, 2002

한국 교회의 영적 멘토이자 제자훈련 목회의 산 증인이었던 옥한흠 목사의 책이다. 이 책은 가정 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어떤 점에서 말씀에 복종 해야 하는 가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정리한 것 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어느 모로 보나 안 믿는 자의 가정과 다른 것이다. 이 차이점 이 점점 돋보일수록 우리는 병들어 썩어가는 현 대가정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남준 지음, 생명의말씀사, 2006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제 시하는 책. 이 책은 성경 속에서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등이 따라야 할 덕목들을 찾아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귀히 여기라>, <잘못된 기대를 버려라>, <마음으로 공경하라> 등 가정을 또 하나 의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을 건네고 있다.



김양재 지음, 두란노, 2014

<상처가 별이 되어>는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특 히 역기능 가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위 로를 전하는 잠언록이다. 저자는 그저 고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할 때 성경을 교과서로, 환 난을 주제로,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면서 주어진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별 불 일 있는’ 사람이고,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비범한 삶이라고 전한다.

아기나들이



강현오 아기

2019년 1월 11일생

1. 하나님이 현오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빠 강연우 성도 / 엄마 임서정 집사, 2019년 5월 5일 4부 예배



이현 아기

2019년 1월 30일생

1.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지혜로운 일꾼으로 성장시켜주세요
2. 늘 감사하고남을 배려할 줄아는 따뜻한마음 주셔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3.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며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현이와 저희 부부 되게 도와주세요

아빠 김영인 성도 / 엄마 이태동 성도, 2019년 5월 12일 2부 예배

공동체 소식

주님의교회 6층에는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중보기도부 (담당교역자:정창화 목사)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05년에 발대식을 가진 이래 현재 모세, 레위, 라파, 엘리야, 미션, 비전, 임마누엘 팀에 속한 총 200여명의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양육 클래스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0명의 중보기도 신입부원들이 6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6월부터 사역을 시작한다. 중보기도부원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보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 다음세대, 선교, 병상의 환우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실에서 기도카드 제목을 보며 매주 한 시간 동안 정한 시간에 릴레이 개인 기도를 드리고, 매월 첫째 목요일에는 전체 기도회로 모임이며 그 시간에 참석을 못하는 직장인들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함께 모여 기도한다. 6층 기도실에는 3곳의 개인 기도실과 주일예배를 위한 레위기기도실이 있으며 특히 제3기도실은 지난 5월 첫 주부터 입식으로 변경되었다.

중보기도 신청함은 교회1층 로비 및 공원과 운동장 쪽 출입구 등 모두 3곳에 마련되어 있는데, 비치된 카드에 기도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여 넣으면 된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하여야 본인과 중보기도부 담당자만 기도내용을 볼 수 있게 되어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응급환자와 같이 기도 카드를 올리기에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각 팀장을 통하거나 부장(김애리 권사 010-4029-9139)에게 전화로 기도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기도제목은 긴급기도를 담당하는 엘리야팀이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라파팀에게 연락하여 즉시 중보기도를 시작한다. 이 외의 경우 전화요청은 기도가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기도 카드로 요청하면 된다. 기도 카드의 경우 긴급 1개월, 일반 2개월, 자녀 3개월, 영혼 구원은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를 원하면 카드로 다시 요청하면 된다.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에 응답카드를 올려주면 사역자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

함줄함울

제6회 통일선교학교

바람이 불어오는 곳 통일선교현장 이야기

The Wind Blows : 4 Stories of Unification Mission Field

1일차 5/23(목) 첫 번째 이야기 : 탈북민 사역 (이무열 목사)
2일차 5/30(목) 두 번째 이야기 : 북한 지하교회 (이종만 사무총장)
3일차 6/07(금) 세 번째 이야기 : 북에서 온 형제 (강원철 형제)
4일차 6/13(목) 네 번째 이야기 : 한 영혼을 찾아서 (오디모데 선교사)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5월 5:3

5.23(목) ~ 6.13(목) 매주 목요일 저녁 **7:20~9:30**
 주님의교회 소예배실(1층)
 주최 | 통일선교본과위원회 회비 | 일반원 (5.12부터 로비에서 접수)

알립니다

1. 제19기 결혼예배학교

대상 : 결혼을 앞둔 커플&신혼부부

일정 : 5/26, 6/2, 9(주일) 3주간 오후4:00~8:30

회비 : 커플당 8만원

신청 : 한시영목사(010.8935.5048)

2. 목양실간사 채용 공고(접수마감: 6/2(주일))

자격 : 50세 이하 여성(기혼 무관)으로서, 사무행정 능력이 있으며 QT하는 분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제출 및 문의: 1층 사무실(02.416.5181)

3. (사)섬김과나눔 사무국 사역자 모집

① 회계간사(여) 1명(회계업무 경험자, 엑셀 가능자)

주4 일, 일 3~4시간, 소정의 사례비(교통비,식대)

② 행정업무 보조(남녀불문) 1명

주2일 봉사, 사례비 없음.

문의: 안성봉안수집사 010.5383.4030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